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자 최소화 힘쓴다



1 화물차 후미에 왕눈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2 중부 내륙선 가남 졸음쉼터 3 함안(부산) 화물차 라온지 휴게소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망률은 2001년 10억km당 14.27명에서 지난해 2.19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화물차 가해 사망자는 302명으로 전체 사망자 582명의 51.9%를 차지하고 사망자 비율도 증가 추세(2018년 51.1% → 2020년 53.1%)다. 화물차 가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졸음·주시 태만(240명, 79%), 과속(28명, 9%), 안전거리 미확보(6명, 2%) 등이 꼽혔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227명, 2019년 176명, 2020년 179명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160명대(1.82명/10억km)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사망자는 2018년 116명, 2019년 91명, 2020년 95명에서 올해 80명 수준까지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 화물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 ▲ 과적·적재 불량 단속강화 등 분야별 개선사항을 정했다.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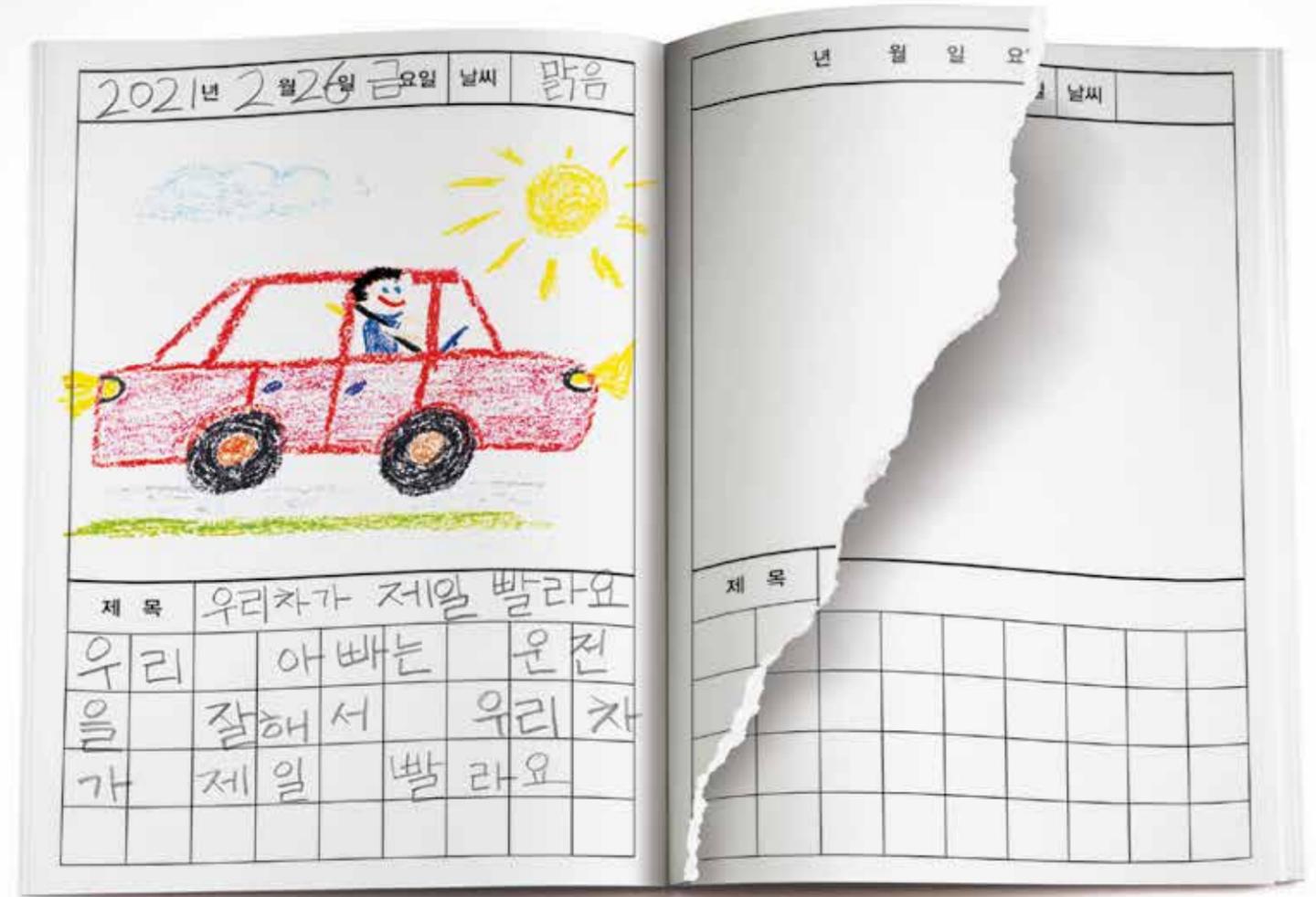
화물차 전용 휴게소 21개소와 더불어 고속도로 구간 내 졸음쉼터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230개소의 졸음쉼터가 있으며, 2023년까지 26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단순히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졸음운전 사망자 수는 2010년 119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64%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화물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 사고 예방 및 휴식 권장을 위해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해 휴식을 인증하면 마일리지 가 쌓이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물품 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제도다. 이밖에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한 눈 모양의 '잠 깨우는 왕눈이' 반사지 스티커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입소문과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호응에 힘입어 공사에서는 약 2만개의 스티커를 추가로 보급했다.

과적·적재 불량 단속강화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휴게시간 미준수, 불법 설치·개조, 과적·적재 불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휴게시간 미준수, 불법(판스프링) 설치·개조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적재중량 위반차량에 대한 실질적 단속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공사는 2019년 8월부터 고속도로 입구 영업소에서의 화물차 중량 계측 정보 중 '과적 차량'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해 적재중량 위반차량의 단속을 추진해 왔다. 2021년 7월부터는 중량 계측정보 제공 대상을 '적재량 4.5 t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과속하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것 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사랑한다면 내일을 지켜주세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켜고 트렁크열고 도로 밖 우선대피 사고신고 1588-2504